

KIA, 우승 세리머니는 뜨겁게 미래 준비는 냉철하게

KS 우승 이후가 '진짜 시험대'
2009·2017 때도 '왕조 재건' 목표
다시 정상에 서는데 7년 걸려
FA 선수들 '집토끼' 붙잡고
내년에는 다시 도전하는 자세로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룬 KIA 타이거즈가 '진짜 시험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4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7-5 역전승을 거두며, 4승 1패의 전적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2017시즌 이후 7년 만이자 타이거즈 역사상 12번째의 우승을 이룬 KIA는 1987년 이후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 축포를 쏘면서 2024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갑작스러운 사령탑 부재와 선임으로 시작은 불안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또 인내로 부상 선수들을 대하면서 마지막 결승전에 맞춰 시즌을 달려왔다.

KIA 구단도 심재학 단장을 중심으로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가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뜨거웠던 그라운드만큼 관중석 열기도 특별했다. 2017시즌 이후 두 번째 100만 관중을 달성한 KIA는 125만9249명이라는 최다 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질주도 시즌 내내 화제를 모으면서 광주는 야구로 풍성한 시즌을 보냈다. 이제 막 2024시즌이 끝났지만 내년 시즌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앞선 '우승 후 침체'라는 공식도 있었던 만큼 KIA의 2025시즌은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KIA는 앞서 2009년과 2017시즌에도 우승을 차지한 뒤 '왕조 재건'을 목표로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우승 다음 시즌이었던 2010시즌 5위를 기록한 KIA는 2011시즌에도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2017시즌 우승 후에도 5위와 7위에 머물면서 기대했던 왕조시대를 열지 못했다.

꾸준한 강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전력 유지와 강화다. KIA는 김도영의 성장과 젊은 마운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긴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베테랑의 힘도 필요하다. 이번 가을 잔치에서도 '89동기' 김선빈과 김태균이 MVP 경쟁을 벌였고, 최형우와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최고경기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경험이 필요하지만 고참급 선수의 내년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KIA의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채워야 한다.



2024 한국시리즈에서 4승1패로 삼성을 꺾고 7년 만에 통합우승을 달성한 KIA 선수들. 현재 전력 유지와 강화로 '왕조 재건'이라는 또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장현식과 임기영이 FA 자격을 얻는다. 올 시즌 불펜의 마당쇠로 활약한 장현식이 리그의 불펜 가문 속 인기가 급상승했고, 임기영도 아쉬운 시즌을 보냈지만 마운드 중심이자 경험 많은 선수다.

집토끼 단속이 이번 스토브리그의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승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픔도 있다. KIA는 37년 만에 홈구장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퓨처스 선수단은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 또 막판 경쟁에서 밀리면서 아쉽게 한국시리즈 엔트리 들지 못해 TV로 우승 장면을 지켜본 이들도 있다.

우승에서 소외됐던 이들을 포용하고 '원팀'으로 새 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시즌이 끝나면 선수단·프런트 정리도 이뤄지곤 한다. 캠프 중반 기준 틀 안에서 사령탑이 선임됐던 것만큼 이범호 감독 체제에 맞는 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도 매끄럽게 흘러가야 한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축승회에서 "2017년 우승한 뒤 성적이 좋지 않았다. (2021년 11월에) 대표이사로서 부임하고 3년 차에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해줘 고맙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5연패를 하면 좋겠다. 5연패를 해서 진짜 타이거즈 왕조가 됐으면 한다. 뒤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 역시 "선수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승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게 감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승팀은 올 시즌으로 끝났다. 내년 시즌 다시 도전해서 다시 우승하는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왕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쓰기 어려운 말이다. 세밀한 부분 잘 잡아내면 올 시즌처럼 좋은 경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만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팀을 만드는 게 내년 시즌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왕조 구축을 이야기하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김영록 지사,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

해상풍력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남도미식·K-컬처 문화 중심 도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현재를 알리고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가진 청정 관광자원의 맛과 멋, 에너지와 첨단기술 등을 소개하며 전남이 글로벌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아 센터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식에서 강연을 통해 글로벌 전남과 남도 케이(K)-컬처 세일즈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강연에서 전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략을 소개,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발사체, 해상풍력,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이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남도 케이-컬처 세일즈를 통해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글로벌 시장에 더욱 알리겠다는 계획도 발

표했다.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통해 남도 미식, 웰니스관광, 케이-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케이-컬처와 결합한 전남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 전남을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이제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한인경제인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70여 나라에서 약 3000여 한인 경제인이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한인 경제인의 중요한 역할을 조명하는 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국회서 공공배달앱 성공 노하우 알려

강기정 시장, 국회 소통관 방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촉구

중개수수료 5%내 입법
소상공인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광주시가 국회에서 전국 모범로 떠오른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성공 노하우를 알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

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고급로·고물가 장기화로 18만여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민간배달앱의 10%에 달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특히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을 대안으로 공공배달앱을 제시하면서도, 운영의 한계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지역 시장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입

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공동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배달앱 점유율 17.3%인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전국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가 열린 당일에는 광주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직전 주 평일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하는 성과도 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제 240326-중-1668330]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